

2009파리선언

21세기 새로운 변혁은 가능하다

사회 모순이 심화되면서 변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은 변혁을 제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변혁을 실천하는 시대이다. 신자유주의의 탐욕은 금융시장을 파산으로 치닫케 하고 있으며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자본주의는 폭력적인 착취를 강화하며 출로를 찾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의 만행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과 제3세계 민중들의 삶은 극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어둠과 고통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 민중들은 절망의 한숨을 걸어버리고 변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이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진보적 근로대중은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제국주의 근거지인 미국, 유럽, 일본의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비야흐로 신자유주의가 치명타를 입고 제국주의가 공포에 떠는 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변혁은 '21세기 새로운 변혁'이다. 코리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21세기 새로운 변혁의 기본목표는 특히 제3세계의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관철하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리아의 민주노동당이 올해 정책당대회를 열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기본이념으로 내외에 천명한 사실은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1세기 새로운 변혁은 진보적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각당, 각계각층이 결집된 연합전선의 힘으로만 추동된다. 민족과 계급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근로대중이 중심에 서서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할 때에만 21세기 새로운 변혁을 완수할 강력한 주체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세상, 곧 진보정당의 집권과 진보정치는 오직 이 길로 나아갈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변혁이 진행되는 시대의 한 복판에 코리아가 서 있음을 주목한다. 코리아반도에서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남코리아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진보적 근로대중은 온갖 난관을 돌파하며 진보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북코리아에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맞서 독특하게 발전시켜온 사회주의가 20세기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변함없이 견고하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변혁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정표 하나를 세운다.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 것이다. 코리아의 진보적 근로대중은 코리아의 진보와 통일을 이루고 신자유주의, 제국주의가 끝장내는 그날을 확신하며 21세기 새로운 변혁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진보적 근로대중이 피와 땀과 눈물로 밀고나가는 21세기 사회변혁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